

## 부분 자율화를 통한 교복 개선에 관한 연구

최휘<sup>1)</sup> · 전은경<sup>2)</sup> · 유화숙<sup>2)</sup>

1) 울산대학교 가정교육전공

2)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 A Study on a Development of the Consumer-Oriented School Uniform by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Whi Choi<sup>1)</sup>, Eunkyung Jeon<sup>2)</sup> and Hwasook Yoo<sup>2)</sup>

1) Dept. of Home Ecology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bstract:** Most of the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oday wear school uniforms. The school uniform is the most important and intimate clothes in adolescences and makes students feel a sense of group identity and belonging, and lessen the difference of economical capabilities. However levels of satisfaction is low because school uniforms do not express their individualities and do not keep up with the fashion.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schools uniforms to raise the levels of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378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 in Ulsan, and a questionnaire was sent out.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ebruary 2007, and frequency analysis,  $\chi^2$ -analysis, and t-test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recognize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as loosening of the regul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attitudes towar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most of the students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plan. They chose a shirt as the most appropriate item and length as the best extent in liberalization. Among the elements of school uniform required to be unified, they selected a jacket and design as the item and extent,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we came to know the demands of students for school uniform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as an improvement of consumer-oriented school uniform.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ir desires would be accepted and reflected in the design and school uniforms would be manufactured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

**Key words:** school uniforms,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 1. 서 론

의복은 동료와의 동조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이를 통해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 등을 표현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타인과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임과 동시에 자기표현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시기에 신체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므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aiser, 1990/1991).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대부분의 중,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복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친근한 의복이다. 교복은 학생들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방지하며 옷을 고르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활동에 불편하고 유행과 동떨어져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학생들의 교복 만족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김윤희, 1991; 이상희, 1996; 김혜정, 2002; 김점해, 2005). 교복 착용에 의한 의복의 획일화는 청소년기 발산적 사고의 통로를 막아 사고의 획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걱정을 잠식시키고 교복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복이 청소년기 자아개념이나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박현숙(1994)은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학생들은 활동의 불편함을 교복의 단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는 교복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김희순,

Corresponding author; Eunkyung Jeon  
Tel. +82-52-259-2842, Fax. +82-52-259-2842  
E-mail: ekjeon@ulsan.ac.kr

2001)에서도 현재 착용중인 교복 디자인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의 색상과 길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의의 소재로 선호한 것은 면섬유를 들고 있어 소재 선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복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김재희, 1987; 김경순, 1993; 박영애, 1998; 조진숙, 1991)에 이어 교복 불만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조은경(2004)은 여고생들이 교복에 대해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족의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색상과 유행에 뒤떨어진 디자인을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교복의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며 교복 디자인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심미성이라고 하였다.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임주희, 2004)에서도 현재 착용 중인 교복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활동하기 불편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며 교복 소재나 가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교복 스타일로 블라우스, 스커트, 스웨터, 조끼, 코트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울산에서 현재 착용되는 교복은 동복의 경우, 대부분이 테일러드 재킷에 바지나 스커트를 기본 형태로 하고 있으며 차이나 칼라도 소수 몇몇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다. 재킷 안에는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착용하며 그 위에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하의는 일자형 바지, A라인 스커트와 플리트 스커트가 대부분이며 상의와 같은 색 또는 더 짙은 색을 착용하고 있다. 하복은 칼라의 변형 정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며, 넥타이를 착용하거나 여학생의 경우 넥타이 대신 리본을 매기도 한다. 소재는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직물이 대부분이며 학교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복의 색상과 직물의 프린트 모양이다. 상의는 흰색과 같이 명도가 높은 색상이 많으며 하의는 짙은 색상이 다수를 이룬다. 동복과 마찬가지로 하의의 형태도 일자형 바지, A라인 스커트와 플리트 스커트가 많다(<http://www.아이비클럽.kr>).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교복들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색상과 직물의 프린트 패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 교복이 학생들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개성이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학생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의 불편함과 디자인적 요소가 불만족의 주요인이라는 하나 가격, 소재 등에서도 불만족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데, 교복의 부분 자율화가 그 해결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불만족이 높기는 하나 교복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학생들 간의 연대의식과 동질감 고취,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등

을 고려한다면 교복의 전면적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복이 한번 선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교복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서 부분적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법인 교복 부분 자율화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교복의 획일화를 막으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활동성과 디자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들이 선택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기사(서울교육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 2006)에 따르면, H고등학교에서는 용의복장 기준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 경제성, 활동성, 시원한 착용감등을 위해 반바지와 티셔츠를 하복 교복으로 도입했다고 하였다. 특히 하의에 경우에는 색상만 정해 각자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도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부분 자율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복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복의 부분 자율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복의 부분 자율화 도입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먼저, 현행 교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중, 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 만족도를 알아보고 부분자율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또한, 교복의 부분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고 부분자율화를 도입하고 싶은 의복품목, 교복의 구성요소와 부분 자율화 정도를 알아보고 가장 선호하는 교복착용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부분자율화의 도입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조사 시기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남학생 36명, 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420부를 배부하여 그 중 378부가 분석되었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2. 용어정의: 교복의 부분 자율화

수요자 중심의 교복 개발을 위한 교복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교복의 부분 자율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복의 부분 자율화라

Table 1.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학력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여학생	96(50%)	64(34%)	160(42%)
남학생	96(50%)	122(66%)	218(58%)
전체	192(51%)	186(49%)	378(100%)

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중 다수가 착의 교복에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의복품목을 가지는 것을 부분 자율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의 부분 자율화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정장 교복 내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는 의복품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예를 들어 넥타이나 셔츠 등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관한 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2.3. 조사도구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박현숙(1994), 이해경(1999), 임주희

(2004), 조은경(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영역의 문항내용과 응답방법은 Table 2와 같다.

2.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교복만족도 조사는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성별, 중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교복의 부분자율화 개념은 빈도분석, 교복의 부분 자율화 허용기준에 대한 성별 및 중, 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Table 2.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개)
교복만족도	유행, 디자인, 세탁성, 활동성, 보완성, 소속감, 가격, 변화기대	15
교복의 부분 자율화 개념	교복과 관련된 개념	6
교복의 부분 자율화 허용기준	찬반 및 의견, 허용기준	10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학년	3

Table 3. 교복 만족도

항 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학력	평균	표준편차	t-값
청소년 감각에 맞다	여	2.52	1.009	-1.035	중학생	2.32	1.188	-5.138**
	남	2.63	1.096		고등학생	2.86	.826	
유행에 맞다	여	2.49	1.064	-0.559	중학생	2.29	1.205	-4.675**
	남	2.56	1.047		고등학생	2.78	.799	
세탁하기 편하다	여	2.73	.846	-0.138	중학생	2.66	1.000	-1.504
	남	2.74	1.003		고등학생	2.81	.867	
여러 번 세탁하면 모양이 변한다	여	3.05	1.057	2.491*	중학생	2.86	1.154	-0.617
	남	2.78	1.000		고등학생	2.93	.889	
활동하기 편하다	여	2.68	.968	0.153	중학생	2.65	1.111	-0.393
	남	2.66	1.029		고등학생	2.69	.878	
날씨 변화에 적합하다	여	2.52	1.181	0.003	중학생	2.56	1.205	0.777
	남	2.52	1.070		고등학생	2.47	1.020	
빈부 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	3.21	1.095	-1.728	중학생	3.19	2.432	-2.320*
	남	3.55	2.288		고등학생	3.63	1.011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 좋다	여	3.39	1.254	-1.354	중학생	3.04	1.277	-7.930**
	남	3.56	1.175		고등학생	3.96	.935	
체형을 보완한다	여	2.69	.998	-0.622	중학생	2.70	1.126	-0.429
	남	2.75	1.004		고등학생	2.75	.855	
소속감을 준다	여	3.10	1.023	0.931	중학생	2.95	1.099	-1.712
	남	3.00	1.038		고등학생	3.13	.952	
가격이 적당하다	여	2.31	1.172	0.196	중학생	2.39	1.333	1.484
	남	2.29	1.142		고등학생	2.21	.927	
교복 모양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	3.68	1.216	1.783	중학생	3.65	1.377	1.639
	남	3.45	1.214		고등학생	3.44	1.024	
교복 소재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	3.51	1.110	1.281	중학생	3.43	1.204	0.114
	남	3.36	1.116		고등학생	3.41	1.016	
교복 자율성이 요구된다	여	3.53	1.110	0.883	중학생	3.51	1.245	0.713
	남	3.42	1.212		고등학생	3.42	1.089	
교복 활동성이 요구된다	여	3.91	1.112	-0.500	중학생	3.83	1.301	-2.051*
	남	3.97	1.179		고등학생	4.07	.959	

\*p<.05 \*\*p<.01

### 3. 결과 및 고찰

#### 3.1. 교복 만족도 조사

교복 만족도에 있어 성별이나 중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3). 각 항목의 평균값은 리커트 척도형 응답 결과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응답값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복에 대해 학생들은 우선 청소년 감각에의 적합성과 유행의 적합성, 세탁의 편리성, 활동성, 날씨 변화의 적합성, 체형 보완성, 가격 적합성 등에 관한 질문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빈부 차 보완성, 선택 갈등 보완성, 소속감 등에 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모양 개선, 교복 소재 변화 요구, 교복 자율성 요구, 활동성 요구 등에서는 변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성별이나 중, 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탁 시 형태 안정성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 세탁 시 형태의 변화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 고등학생 간에는 청소년 감각에의 적합성, 유행의 적합성, 빈부 차 보완성, 선택 갈등 보완성, 활동성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착용하는 교복이 청소년 감각과 유행에 맞고, 빈부의 차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선택에 대한 갈등이 적어 좋고, 교복의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성별이나 중, 고등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 없이 교복이 빈부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의복 선택의 수고를 덜어주며 소속감을 느끼게는 하지만 감각, 유행, 날씨변화, 가격 등에서 적당하지 않고 활동성과 체형보완성도 문제가 있어 불만족스러우며, 교복모양과 소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복에 대한 자율성과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3.2.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관한 개념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관련 개념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개념 포함 여부를 체크하게 하였다. 그 결과(Table 4)를 보면 다른 개념들은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포함된다고 응답한 학생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거나 거의 비슷하였으나 교복 규제 범위 완화는 포함한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더 많아 학생들은 교복의 부분 자율화를 교복의 규제 범위를 완화한 교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3.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대한 태도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Table 5) 80.2%의 학생이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해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내었다. 찬성 이유는 37.0%가 ‘개성을 살릴 수 있어

Table 4.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관한 개념 (단위: 명)

개념	부분자율화 개념 안에 포함유무	
	포함	포함하지 않음
캐주얼 스타일 교복에 도입	125(33.1)	253(66.9)
기능성 디자인	156(41.3)	222(58.7)
소재의 실용성	150(39.7)	228(60.3)
교복의 정형화 탈피	155(41.0)	223(59.0)
교복 규제 범위 완화	209(55.3)	169(44.7)
개성 표현 가능	191(50.5)	187(49.5)

Table 5. 교복의 부분 자율화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성별		학력		전체
	여학생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찬성	128	175	159	144	303
	80.0%	80.3%	82.8%	77.4%	80.2%
반대	32	43	33	42	75
	20.0%	19.7%	17.2%	22.6%	19.8%
전체	160	218	192	186	378
χ <sup>2</sup> 값(p)	0.947(0.524)		0.483(0.257)		

Table 6. 교복의 부분 자율화 찬성 이유 (단위: 명)

구분	성별		학력		전체
	여학생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활동하기 편해서	37	32	26	43	69
	27.6%	17.3%	15.9%	27.7%	21.6%
개성을 살릴 수 있어서	39	79	59	59	118
	29.1%	42.7%	36.0%	38.1%	37.0%
자주 세탁할 수 있어서	7	3	7	3	10
	5.2%	1.6%	4.3%	1.9%	3.1%
교복 규율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어서	14	23	17	20	37
	10.4%	12.4%	10.4%	12.9%	11.6%
신세대 감각에 맞아서	15	19	27	7	34
	11.2%	10.3%	16.5%	4.5%	10.7%
자유롭고 경제적이어서	3	2	2	3	5
	2.2%	1.1%	1.2%	1.9%	1.6%
기타	19	27	26	20	46
	14.2%	14.6%	15.9%	12.9%	14.4%
전체	160	218	192	186	378
χ <sup>2</sup> 값	18.540**		0.055*		

\*p<.05 \*\*p<.01

서’, 21.6%가 ‘활동하기 편해서’ 순의 응답을 보였다(Table 6). 성별이나 중,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있어서, 성별의 경우 남녀 모두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응답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찬성 이유로 들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활동하기 편해서’에도 많은 학생들이 찬성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킨트를 착용하고 상의도 옷이 많이 맞는 편으로 더 불편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 고등학생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찬성의 두 번째 이유에서 중학생의 경우 ‘신세대 감각에 맞아서’를 들

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활동하기 편해서’를 들고 있어 중학생에 비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고등학생은 활동성 측면에, 중학생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미적 측면에서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복의 부분 자율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해야 하므로’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19.2%가 ‘교복답지 못해 보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Table 7). 각각 모두 성별이나 중·고등학생 간의 응답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분 자율화의 적합한 허용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교복에서 자율성을 배제하고 통일시켜 일관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복품목을 알아보았으며(표 8), 교복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를 조사했다(표 9). 4개를 골라 우선순위로 적도록 하였으나 세가지, 두가지만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기에 순위별 결측값이 발생했다. 일괄적으로 통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복품목에는 재킷이 52.6%로 1순위를 차지했고 셔츠가 18%로 2순위를 차지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율 선택 가능 의복품목에서 재킷을 제외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바깥에 입는 상의에서는 소속감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복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는 디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8%의 학생이 색상을 선택했다.

**Table 7.** 교복의 부분 자율화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성별		학력		전체
	여학생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답지 못해 보이므로	12 16.4%	26 20.8%	16 17.4%	22 20.8%	38 19.2%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해야 하므로	30 41.1%	39 31.2%	34 37.0%	35 33.0%	69 34.8%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9 12.3%	13 10.4%	13 14.1%	9 8.5%	22 11.1%
심리적 통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4 5.5%	8 6.4%	5 5.4%	7 6.6%	12 6.1%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7 9.6%	14 11.2%	9 9.8%	12 11.3%	21 10.6%
빈부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8 11.0%	17 13.6%	8 8.7%	17 16.0%	25 12.6%
기타	3 4.1%	8 6.4%	7 7.6%	4 3.8%	11 5.6%
전체	160 100%	218 100%	192 100%	186 100%	378 100%
$\chi^2(p)$	2.773(0.837)		5.547(0.476)		

그와 반대로 교복에서 자율 선택에 적합한 의복품목과 구성 요소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Table 8, 9). 마찬가지로 항목 중 4개를 골라 우선순위로 적도록 하여 순위별 결측값이 발생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의복 아이템에는 셔츠가 32.3%로 1순위를, 재킷이 29.9%로 2순위를 차지했다. 그 외 조끼, 넥타이, 바지 혹은 스커트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율 선택 허용 아이템으로 셔츠와 재킷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에서는 길이를 선택한 학생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5%의 학생이 디자인을 선택했다. 표 8과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복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복품목은 재킷이었고 구성요소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적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복품목은 셔츠이고, 구성요소는 길이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은 가장 바깥에 입는 재킷은 모두 일정하게 똑같이 입고 디자인측면에서의 통일성을 가져 전체적으로 교복이 주는 소속감과 동질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 입는 셔츠를 다양하게 하고 길이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율권이 주어질 경우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해 주기를 원하는지 알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의복품목 수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Table 10) 세 개(33.6%)>두개

**Table 8.** 통일성 또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의복품목 (단위: 명)

	통일성				자율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재킷	199 52.6%	41 10.8%	34 9.0%	33 8.7%	113 29.9%	42 11.1%	61 16.1%	46 12.2%
조끼	14 3.7%	61 16.1%	93 24.6%	67 17.7%	54 14.3%	89 23.5%	76 20.1%	54 14.3%
셔츠	68 18.0%	92 24.3%	73 19.3%	62 16.4%	122 32.3%	90 23.8%	66 17.5%	30 7.9%
넥타이	31 8.2%	57 15.1%	78 20.6%	65 17.2%	41 10.8%	72 19.0%	50 13.2%	60 15.9%
바지 혹은 스커트	60 15.9%	107 28.3%	58 15.3%	69 18.3%	40 10.6%	49 13.0%	50 13.2%	81 21.4%
합계*	372	358	336	286	370	342	304	271

\*무응답으로 인해 합계가 동일하지 않음

**Table 9.** 통일성 또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 (단위: 명)

	통일성				자율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같이	49 13.0%	19 5.0%	45 11.9%	53 14.0%	139 36.8%	49 13.0%	47 12.4%	35 9.3%
실루엣	32 8.5%	49 13.0%	67 17.7%	95 25.1%	36 9.5%	79 20.9%	57 15.1%	66 17.5%
소재	68 18.0%	79 20.9%	86 22.8%	60 15.9%	42 11.1%	72 19.0%	85 22.5%	45 11.9%
색상	90 23.8%	137 36.2%	68 18.0%	36 9.5%	42 11.1%	86 22.8%	62 16.4%	75 19.8%
디자인	133 35.2%	71 18.8%	60 15.9%	44 11.6%	81 21.5%	53 14.0%	47 12.4%	48 12.7%
합계	373	355	326	288	370	342	304	271

**Table 10.**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의복품목 수

의복품목 수(개)	1	2	3	4	4개 이상
원하는 비율(%)	9.5	29.6	33.6	12.7	14.6

(29.6%)>네 개 이상(14.6%)>네 개(12.7%)>한개(9.5%)의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세 개 정도의 의복품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 자율권이 주어 진다면 자율권이 부여된 의복의 선택범위에 대해 완전 자율권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지를 물어본 결과(표 11), 55.3%의 학생이 어떤 규제도 두지 않기를 원했고, 44.7%의 학생이 색상, 소재, 형태 등의 규제를 두기를 원했다. 성별과 중, 고등학생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떤 규제도 두지 않는 것을 더 원한다고 응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교복의 부분자율화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선호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교복방식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이 질문에서 사용되는 캐주얼 교복은 기존의 정장형태 교복에 캐주얼 요소를 도입한 형태의 교복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장형태의 교복과 새로운 교복 개선 방안으로서의 캐주얼 교복과 부분 자율화 등에 대한 선호를 표

**Table 11.** 자율 선택권이 부여된 의복에 대한 규제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성별		학력		전체
	여학생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떤 규제도 두지 않는다.	79 49.4%	130 59.6%	108 56.3%	101 54.3%	209 55.3%
색상, 소재, 무늬, 형태 등을 규제한다.	81 50.6%	88 40.4%	84 43.8%	85 45.7%	169 44.7%
전체	160 100%	218 100%	192 100%	186 100%	378 100%
$\chi^2$ 값	3.928*		0.145		

\*p<.05 \*\*p<.01

**Table 12.** 선호하는 교복 방식 (단위: 명)

구분	성별		학력		전체
	여학생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재의 정장식 교복	30 18.9%	43 20.9%	26 14.1%	47 26.0%	73 20.0%
캐주얼 교복	35 22.0%	53 25.7%	58 31.5%	30 16.6%	88 24.1%
현재 교복에 부분 자율화	64 40.3%	62 30.1%	53 28.8%	73 40.3%	126 34.5%
캐주얼 교복에 부분 자율화	30 18.9%	48 23.3%	47 25.5%	31 17.1%	78 21.4%
전체	159 100%	206 100%	184 100%	181 100%	365 100%
$\chi^2$ 값	4.200		21.384**		

\*p<.05 \*\*p<.01

시하도록 하였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34.5%의 학생이 현재 교복에 부분 자율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캐주얼 교복, 캐주얼 교복에 부분 자율화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정장교복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련의 선행연구들(김화순, 2001; 조은경, 2004; 임주희, 2004)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중,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현재의 정장 스타일 교복과 현재 교복에 부분 자율화가 허용되는 교복을 더 선호하는 반면, 중학생은 캐주얼 교복과 캐주얼 교복에 부분 자율화가 허용되는 교복을 더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더 성숙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교복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인식하여 좀 더 정식적이고 규정한 교복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학생이 교복을 착용할 경우 캐주얼 스타일보다는 교복이 주는 소속감과 동질의식을 갖고 시간절약과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는 점 등의 좋은 점을 그대로 취한 채 부분적으로 자율권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교복이 갖는 긍정적 기능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활동성에서 불편하고 자신들의 개성도 어느 정도는 나타내고 싶어 하여 부분적 자율화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복 착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복의 부분 자율화라는 새로운 교복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먼저 착용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족스런 교복의 개선책으로 현재 착용 교복에서의 부분 자율화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과 호응도를 조사하였고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대한 의견 및 적절한 허용범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성별이나 중, 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없이 대체로 교복에 대해 청소년 감각에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더위와 추위의 대응력이나 가격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활동성이나 세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교복이 더욱 편해지길 원했고 모양이나 소재의 변화와 교복에 있어서 자율성 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복의 부분 자율화에 대해 학생들은 규제 범위를 완화한 교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교복의 부분 자율화 도입을 적극 찬성하였으며, 찬성이유를 보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답변에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활동성 측면에서 자율화를 적극 찬성하였고,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활동성 측면에서, 중학생은 심미적 측면에서 자율화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부분 자율화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자율적으로 선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복품목으로 셔츠를 선택하였고 가장 적합한 구성요소로는 길이를 선택하였다. 반대로 교복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복으로 재킷을,

구성요소로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율선택권이 주어진 후 의복에 대한 규제는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은 교복 방식 중 현재 교복에 부분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교복의 부분 자율화는 교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켓은 통일성을 갖으면서 셔츠와 의복 길이에서의 자율성을 원하고 세 개 정도의 의복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자켓에서는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셔츠에서 다양성을 갖도록 하고 의복 길이에서의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 따라 한 두 품목에서의 자율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한다면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경순 (1993) 여고생 교복 실태 및 디자인 선호에 따른 교복 디자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aiser S. (1990)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옮김 (1991) “복식 사회 심리학”. 경조사, 서울, p. 79

김윤희 (1991) 여자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점해 (2005) 여고생 동복재킷의 형태 및 소재의 신축성에 따른 만족도와 착용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희 (1987) 남자 고등학생 겨울용 교복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하순 (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 (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 (1998)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숙 (199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희 (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 관심도, 자아개념: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 (1999) 교복변형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 (2004) Jean 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숙 (1991)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 여고생 추동용 교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문길 (1974) 중고교생의 교복 자율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news.sen.go.kr>  
<http://www.아이비클럽.kr>

(2007년 8월 16일 접수)